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0호 [우편 제25273호] 주제 105 (2016)년 5월 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중앙파라 영원히 한길을 갈 총정의 맥세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 3일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국력이 강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워 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였다고 하시였다.

대회장에 차넘친 혁명적 열정과 기백은 하나의 사상의 지로 철통같이 동婵 우리 당의 참모습, 당의 명도파라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를 품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세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고귀한 밑천으로, 만년로대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퍼상과 풀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한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여 있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드높지 않은

기쁨을 마련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면 짧은 기간에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였다.

내각파 경제지도기판들, 경제지도일군들이 당대회가 제시한 충당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구체적인 작전과 지도사업을 잘하여 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실행부문에 출력을 질증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뿐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기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대회가 내세운 전략적선과 당침관철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짜고들며 선전선동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벌립으로써 온 나라에 배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자강력제일주의로 둔른히 무장시키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자강력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만사를 자강력으로 해결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침입식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정치사상공세의 도수를 높이고 온 사회가 양양된 혁명적분위기로 끌게 하자면 출판보도부문과 문학예술부문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과 자세에서 린엄없는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며 말거진 파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충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과업을 관찰하기 위한 투쟁에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떼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주체혁명의 주역군단계 주동이 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혼신적인 투쟁기풍을 따라바꿔 자기 혁명초소를 최선으로 여기고 명령받은 병사의 자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천폐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떼쳐일어나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용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충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기상을 만천하에 멀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은 뼈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로를 밝힌 강령적문헌이며 천민군민을 새로운 혁명적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 백승의 진로를 펼쳐준 위대한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가 5월 8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 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었으며 대회의 기본정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사 대한 결론을 하시기 위하여 연락에 나서시자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열광적 가다듬었다.

인 박수를 떠쳐울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론을 받아들이며 대회 참가자들은 당 제7차 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었으며 대회의 기본정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사 전을 파감히 벌려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지나온 혁명의 낸대들에 우리 당의 글함 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영웅적 투쟁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온 것처럼 혁명의 뜻은 기높이 전진 도상에 가로놓

인 도전과 난관을 용감히 헤고 흥진 군포성을 힘차게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의 분수령으로 되게 할 의지가 어려있었다.

그들은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파감히 벌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높은 존엄과 불폐의 위력,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본래를 만천하에 펼쳐나갈 새로운 각오와 투지로 가슴을 뜨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결론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및 나는 예지와 천리해안의 선견지명, 확고부동한 자주의 신념과 철의 의지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신 절세위인을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떠쳐울리였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향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과학적 통찰력과 현대한 포부,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일관

되어 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 가르침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당 제7차 대회 정신을 실장마다에 조아박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강용한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을 만방에 펼쳐갈 불타는 맹세를 가다듬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랑독되었다.

3 면으로 계속



# 백승의 진로를 펼쳐준 위대한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 진행



## 2 번 예 서 계 속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를 최승호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300만 조선소년 단원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은 향기고운 풀바구니를 삼가 드리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을朗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이 대회장에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00만 청년전 위들의 열렬한 흥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은

향기고운 풀바구니를 삼가 드리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을朗독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3일 회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배년대계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준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 최대로 분출되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악관을 백배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 4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확고부동한 혁명신념과 도덕의리에 기초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키시기로 고개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만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의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편도 따라 대를 이어 꽂까지 계승발전될것이다.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투쟁파장을 우리 당과 인민은 주자성으로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령에서 수령이 절정적역할을 하며 수령의 위업계승문화가 혁명의 문명과 인민의 장애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라는 고려한 철학을 뿐만 아니라 확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수십성상에 걸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수령뿐이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수령의 사상과 행동을 빛나게 계승하는데는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힘을 불어넣는 것을 천명한다.

## 2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력사적사명이다.

우리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회보고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회기지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데 대한 강령적파장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회기지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회대에 대한 강령적파업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렌시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회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세승이며 새로운 단계에로의 실화발전이다.

대회는 우리가 제국주의원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위용에 힘입고 번영하는 인민의 학원을 하루빨리 일제세우며 세계자주화와 회화위업수령의 주인공이 되자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회를 힘있게 다그쳐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배방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한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명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실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빛나게 혁명파 전선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철학적인 체계이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회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로 혁명파 전선을 높이고나가며 수령님파, 군대님파,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투정이다.

대회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회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실화시켜 모든 부문에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청서히 편향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당파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갈 군의지를 표명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회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부쟁사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회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부쟁사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임입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끌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연이길강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를 마련하여 주신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이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회하기 위한 투쟁의 터무니로 다지고 사회주의의원칙을 이룩해야 한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하고 파악기술강국과 경제강국, 문화강국의 막바운 승리를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당의 흥보선을 철저히 판절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회기치밀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전진하여 위대하여는 인민정권이 수령하여 할 계속혁명의 파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의 핵심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주주의의 차이를 확장화하고 끌어내야 한다.

차장혁제일주의의 차이는 차제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을 강화하고 차제의 압박에 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차장혁제일주의의 역사는 차장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는 혁명이다.

차장혁제일주의의 기인은 차제나라 혁명은 차제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차장혁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두정당을 철저히 판절하여야 한다.

제4차 대회에서 밝힌 주체적무리를 높여야 한다.</p

# 조선로동당

# 제7차 대회 결정서

## 5면에서 계속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높이고 교육수준을 높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할것이다. 특히 천직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딜레이션을 비롯한 대중보도단을 통한 교육도 잘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생동안 배우면서 우리 경제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할것이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꾸밀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중등교육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세우고 적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종합학과 및 창작성을 개선하면서 실질실습과 기초동원의 비중을 높일것이다.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것이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저적재학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새롭고 높았던 지식을 더 넓힐 제도화하고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신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 한다.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과 직업기술대학들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교육강령을 바로세우고 집행해 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각우워주는 교수방법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철저히 구현하여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과학기술교육을 지식전수의 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 확고히 지원시켜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일수 있도록 실현력 가방법을 개선하여 대학활성화방법을 확고한 종조가 되도록 할것이다.

교육조전과 생활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로 대체 조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부자리를 세기적으로 늘리며 전자화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 도모하여 한다. 대학과 각급 학교들에 전자화와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 실험실습기지를 잘 꾸려고 활발히 운영하도록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주요대학들은 세계적인 일류대학들과 달리 해를 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누구나 병치마를 대 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라는 일치한 결론을 표명한다.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의료의 예방적 방침을 절실히 관철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짚증하며 예방사업의 힘을 잘하여 병질리를 줄여 낮추어야 한다.

의사당구구역들을 강화하여 담당의사들이 대 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병치마를 대 한 체질특성에 맞게 각종 질병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전강판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할것이다.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대의 학술전주에 맞게 일선 진단, 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 학파 고의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면역거리를 외로 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구조대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이다.

의학과학기술을 벌리 발전시켜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보건실에서 결탁하지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을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여 최신의 학과학기술을 적극 발달시킬것이다. 세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 등을 대체하고 효율높은 의약품과 침단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물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이다.

근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처로 꾸리고 려인민병원, 진료소들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할것이다.

체육강국을 전진하는 것은 사회주의보건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체육강국은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나라이다.

대회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승기와 기개를 기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일 확고한 의미로 표명한다.

전문체육기술을 봄 시일안에의 세계체육경기장을 열어나가는 원칙을 전기적으로 높이에

올려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체육의 학과학회장을 열어나간다.

체육부문에서는 혼련을 강화하고 우리 식의 우월한 경기전략을 완성하며 국제경기력에서 영웅으로 선서로운 체육신화를 펴기 위해 아시아의 대회, 세계체육전을 위로 할것이다. 학교체육사업을 개선하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 온 나라가 체육으로 꿈을 할것이다.

체육의 학과학회는 체육강국건설의 주동력이다. 혼련과 경기는 물론 후비육성과 체육기초체생산에 이르기까지 체육부문의 모든 사업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조선사람의 체질특성에 맞게 체육과학을 발전시킬것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삽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의 힘을 주고자이다.

대회는 문학예술을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창작으로 수령을 웅위하고 혁명을 보위하여 당의 척후대, 나팔수로 불무해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우승전통을 이어받아 노래도 일일로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밟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기수를 될것을 기대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업적, 고례한 풍모를 깊이 있게 형상화된 평가, 평가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 향식을 주고 그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소설과 시, 영화문학, 국문학작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영화예술부문이 하루빨리 체계에서 벗어나 새 세기 영화예술의 불길을 일으키고 세계문화예술의 선정성을 열어나가면서 세속적영향력을 하여야 한다. 무대에 출부문과 미술부문에서는 당의 문예사업과 미술작품을 구현되고 우리 인민의 미각에 맞으 면 인민들이 좋아하는 영화물을 창작장조하여야 한다.

군중문화예술에 출부문을 활발히 벌리 예술의 대중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드높는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함께 울려져도록 할것이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정책 등을 짓부시고 우리 사회주의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훔쳐 하 고수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 등을 혁명적인 사상문화공세로 짓부시며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할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주의민족문화가 제일이라는 뜻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피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민족정서와 아름답고 전진한 사회주의생활이 풍기 풍기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전시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비로세워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습관과 윤리를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친구의 화목을 도모하는 어려움을 인간관계에 불과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사회공동체들과 친구를 험하게 차지으로 지으며 특히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종조가 되도록 할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과 빙리방법을 구현하여 깊깔같은 군纪를 세우고 정규화제련으로 대체하고 유행하는 군인성찰문화제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의 주역군, 돌격대의 위력을 세우고 높이 높여야 한다.

조선인민내무부는 수령님보위, 세도보위, 민민보위의 깔을 더욱 날카롭게 베려야 한다. 조선인민내무군은 일찍 한 명령지휘체계와 강철같은 군기로 확립하고 당과 사회주의제도, 민인의 생명재산을 노리는 계급적반대파들과 적대분자들의 군중을 빙어제단에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다. 인민보안기관들의 사업을 절정으로 개선하고 사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펼쳐야 하며 전투기력을 향상화로써 세워지기 지지역과 판내를 한데 모은 수령과 민족의 힘으로 차넘치도록 할것이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초로 한 민족화와 혁명화를 향상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상과 군纪로는 군무원, 헌장으로는 항일유적대식부대지휘관으로 세우고 확고한 문화정서와 기강을 확고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괄과 함께 혁명선배를 존배하고 혁명선수를 풀어 모든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 오중총7년대 청호강위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ῇ 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희의로 일어나가도록 만들것이다.

인민군대는 군인의 육체와 정신을 기

# 조선로동당

6면에서 계속

대회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간섭 등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어려나사를 서 전쟁과 분쟁이 그칠 사이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의 정세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강원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 행위를 겸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멀어나서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한 결론을 표명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겸지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존엄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이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외세의 간섭과 저해를 반대해 직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화하려고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임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미제는 세계평화와 안전의 고판자, 죄악자이며 세계자주화의 주체적 대상이다.

세계평화에 대한 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임을 해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자대결과 전쟁을 물어오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철거하고 다른 나라들에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옹호』와 『세계화』의 간판밑에 간행되는 세계국주의 자들의 고발한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민이자 국진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참다운 인권은 자주적인 국가정치에 의하여 당포된다. 세계 전보적 나라들과 민들은 세계국주의자들이 미제는 『인민옹호』를 깃부르며 사상최대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킨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침략적 폭행과 가혹한 인권침해 행위를 단연히 반대해야 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빙면술과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정진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대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임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걸의 아닌 『걸의』들이 세력되고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처해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경보적인 유엔은 세계평화와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정진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대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임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걸의 아닌 『걸의』들이 세력되고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처해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민파 한 『정의』의 힘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막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시버리고 풍성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의 힘을 키우며 세계자주화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자주화를 옹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벌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이류풍물의 피상이며 인민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을 하는 법칙이다.

사회주의의 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번대성을 강화하며 협조와 협류를 확대 발전시키려고 한다.

사회주의의 힘을 키우는 사회주의의 기반, 반제자주의 기지를 들고 세계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을 짓부수며 세계자주화의 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세워온 세계자주화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 5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 항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보부이다.

대회는 충결기간 조선로동당이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면서 대회에 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강화발전되며 주체혁명 위업을 짓나는 승리의 한걸로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대회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파리를 구현하여 참다운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

총결기 간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파, 봉도에 충실했던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일체로 강화발전되었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선제적인 문제는 당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개된다.

우리 당은 당사상사업에 옥을 끊고 전쟁과 전횡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사상사업에 옥을 끊고 전쟁과 전횡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개된다.

# 제7차 대회 결정서

인민을 당의 두리에 풀려나게 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신적인 군중파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혁명파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진이 아니라 신 사람을 보아야 하며 파자가 아니라 현재의 충실성을 보고 사람들에게 험한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업과 고부동원 지도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당조직들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회보고에서 당의 강화발전과 당사업에 세운 운전환을 이루어기 위한 강령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회보고에서 당의 강령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기 출당조직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개선하고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당사업의 회력을 흥정중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혁명파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내고나갈 것이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파업을 집행하는데 모든 것을 지향시켜고 복종시키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군로자들이 말은 초소에서 자기 책임과 지분을 더하도록 할것이다.

당 세로로 비롯한 기 출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혁명파업을 직관으로 풀어내도록 할것이다. 모든 사업을 민심에 맞게 조직진행하며 민심을 외면하거나 흐리게 하는 현상을 다루어내는 것은 우리 당원과 당조직들이 당의 정신으로 당사업을 더 넓어져 군로자들이 말은 초소에서 자기 책임과 지분을 더하도록 할것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것을 제시한 혁명파업을 풀어내도록 할것이다. 당사업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다.

사업사업은 당의 기본원칙이며 사업사업을 확고히 앞세





# 조선소년단축하단축하문 어머니로동당에영광드려요

애기별이 반짝 웃는 어제 밤  
어머니당대회를 축하하며 간다  
고요

송이총이 꽂다발 꽂게 엎는데  
귀염둥이 내 동생 문득 물어보겠  
지요  
—언니야 땅이란 무슨 말이나

아이들 이걸 어찌나  
나는아 끔끔히 생각했어요  
온 나라가 풍해하면 소년단대회  
야영소로 달리면 사랑의 현차를

옳지 그래 나는 나는 대답했지요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은 선창으로  
주시는  
땅이란 경애하는 원수님

김정은원수님은 조선로동당

그렇습니다  
데여나면 애기궁전  
자파나면 소년궁전  
꽃봉오리 우리들을 한풀에 안아  
애지중지 기워주는 조선로동당

옛 말 속의 천리마를 만리마로  
끌려  
기적의 내 나라를 안아오고  
그 어떤 원쑤도 열린 뜻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우뚝 세워준  
그 이름도 빛나는 조선로동당

아 소년단원 우리들은  
원수님 마련해주신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영원히 빛내주시고  
어머니당을 이끄시여  
우리의 행복을 가꿔주시고 지켜  
주시고  
친관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정다운 학교길 걸을 때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가슴에 날리는 뿐은비타이는  
우리 당기발과 한빛

어깨동무 딸구르며  
사랑행진 신이 날 때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펄펄 날리는 소년단기발은  
우리 당기발의 한부분

그렇습니다 조선소년단은  
그 이름도 자랑찬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당기발마다 나가는 걸에  
우리의 행복은 넘치고  
우리의 앞날은 활활합니다

어머니당의 뜻에 안기어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꽃동산에서  
부럽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가슴마다 넘치는 고마움으로  
어머니당기발을 우리로  
대원수님들의 한한 웃음이  
그대로 해빛이 되여  
우리의 온몸을 감싸줍니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가면 칼수록  
더 육며 그리워지는  
김일성대원수님

어머니당 제8차대회  
고 높은 연단을 내리신 절음  
제일먼저 새기신것은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풀없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공장으로 농장으로  
낮파 밤을 이어 가시는 그 길에  
서도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 라고  
하시며  
이 세상 제일 좋은 터를 끌라  
못난다 궁전도 애영소도 지어  
12월의 눈보라를 헤쳐가시면



주시고

온 나라 아이들에게 한날한시  
똑같이 새 교복을 입혀주시고도  
개학날이 오면

자애로운 학부형이 되시여  
기낮은 깨실 작은 책상을 마주  
하시고

교수참판도 하시았습니다

정명 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후대들을 위해 바라시는 것 이  
라면

제 하늘의 별도 따오시던

김정일대원수님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떨고 힘한 길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한달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가슴아프다고 하시며

주머니를 더 털어서라도

한우·우유·장만은 세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

그처럼 바쁘신 전선길에서도

아영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시면

말리면 아전차도 멈추시고

손저어 바래 위 주시 먼 우리

아버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애영소로

오늘도 그 노래 목에 어부르며

사투리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는 우리들입니다

대원수님

김일성대원수님

자애로운 그 영상 우리로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가 열리

던 날

불편하신 몸으로 아이들곁에

오시면서도

내가 지령이름 짚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운다고

차안에 두고 오신 그 지령이가

못 견디게 우리 가슴을 허비고

낮파 밤을 이어 가시는 그 길에

서도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 라고

하시며

이 세상 제일 좋은 터를 끌라

못난다 궁전도 애영소도 지어

12월의 눈보라를 헤쳐가시면

며고

인자하신 그 영상 우리로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

다



야전현장의 기적소리가

영원한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애로운 학부형이 되시여

기낮은 깨실 작은 책상을 마주

하시고

교수참판도 하시였습니다

정명 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후대들을 위해 바라시는 것 이  
라면

제 하늘의 별도 따오시던

김정일대원수님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떨고 힘한 길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한달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가슴아프다고 하시며

주머니를 더 털어서라도

한우·우유·장만은 세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

그처럼 바쁘신 전선길에서도

아영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시면

말리면 아전차도 멈추시고

손저어 바래 위 주시 먼 우리

아버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애영소로

오늘도 그 노래 목에 어부르며

사투리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는 우리들입니다

대원수님

김일성대원수님

자애로운 그 영상 우리로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가 열리

던 날

불편하신 몸으로 아이들곁에

오시면서도

내가 지령이름 짚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운다고

차안에 두고 오신 그 지령이가

못 견디게 우리 가슴을 허비고

낮파 밤을 이어 가시는 그 길에

서도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 라고

하시며

이 세상 제일 좋은 터를 끌라

못난다 궁전도 애영소도 지어

12월의 눈보라를 헤쳐가시면

며고

인자하신 그 영상 우리로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

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어

아버지장군님 그리워 우는  
원아들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조용히 하시면 그 말씀

궁궐같은

대원수님들의 한정생은  
후대들을 위한 한정생

조국의 미래를 위한 한정생

어머니 우리 당의 역사는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래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